

# 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 “현실 속의 기본소득”으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현대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고 자신의 몫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의제와 운동은 언제나 국제주의를 머리와 가슴에 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장 뚜렷한 예가 범아프리카주의 같은 디아스포라의 운동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사회운동으로 여겨지는 노동자 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착취와 억압이 (국제 노동 분업에 따른) 지역적 차이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문화적 양상에 따른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추동력과 메커니즘 자체가 세계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국가 간 체제(inter-state system)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주의가 취할 수 있는 제도의 한 가지 형태가 대회(congress)였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리는 대회는 우선 구체적 정세 속에서 해당 운동의 공통 과제를 도출하고 선언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대회를 여는 일 자체가 또한 하나의 운동일 수밖에 없다. 대회 자체가 국제주의 운동의 제도 형태라 한다면, 이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다시 흩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운동의 결절점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결절점의 색깔을 규정하는 주요한 힘 가운데 하나가 개최지(호스트) 운동의 지향과 역량이다. 개최지의 운동이 해당 운동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향, 즉 좀더 급진적인가 아니면 개혁적인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운동의 대의를 구성하는가, 개최지 국가 내에서 이 운동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영향력을 어떠한가 등이 해당 시기 대회의 성격, 규모, 의미 등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22차 BIEN 대회로 가는 길

2023년 8월 한국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ngress)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이렇게 국제주의적 운동의 근거, 형태, 가능성에 대해 짧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은 30년이 넘는 기본소득 국제 운동을 진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이번 대회의 고유한 성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역사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 BIEN의 웹사이트 안의 짧은 소개 글을 보면 1986년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로 만들어졌으며, (2004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의 결의를 거쳐) 2006년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영국의 가이 스탠딩이 BIEN 25주년을 맞이하여 쓴 글을 보면 좀 더 흥미로운 뒷 이야기는 물론이고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의 (재)등장과 확산의 배경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알 수 있다.

기본소득 운동의 전 지구적 확산은 2016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서울에서 16차 대회가 열림으로써 한 번의 순환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은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국제적인 논의를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색깔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그리고 운동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초기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은 크게 네 개의 흐름이 합류하고 교차하면서 형성되었다. 하나는 『녹색 평론』을 하나의 깃발로 하는 일부 생태주의 운동이다. 산업 문명의 물질주의 그리고 특히 금융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여 새로운 생태 문명의 구성을 요구하는 이 흐름에서 기본소득은 고용 노동의 종속에서 벗어나는 수단이며, 일부가 독점하는 부의 정당한 분배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두 번째로 구좌파의 일부였으나 21세기 들어 ‘새로운 좌파 기획’의 흐름이 기본소득 의제를 수용하고, 기본소득 운동에 합류했다. 사회적 공화주의를 정치의 과제로 삼고, 신자유주의의 종식을 당면의 사회경제적 과제로 삼는 이 흐름에서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참여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재원은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폭증한 ‘불로 소득’의 환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 구좌파에서 출발했지만 87년 체제의 경험이 지속되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개혁의 성취를 커다란 변화의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지식인과 정책가 집단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현 단계에 대한 인식이나 지향점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 두 번째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졌다. 다만 기본소득을 비롯한 ‘혁명적 개혁 정책’을 성취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찾으려 했고, 나름대로 찾았다는 데서 중요하고 또 착잡한 의미가 있다. 네 번째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추구하는 연구자와 정책가 집단이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표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이념 지향적이기보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구체적 작동 방식, 특히 노동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복지국가론이 가지고 있는 난점과 현실 부정합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말한 네 개의 흐름은 이런 분류 방법에 내재한 단순화와 유형화의 난점을 피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런 흐름은 앞서 말한 것으로 합류하기도 교차하기도 하며, 또 수렴하기도 하면서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이라는 더 큰 흐름을 형성했다.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부터 2019년까지 기본소득 운동의 중심 기관이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 기본소득의 의

미 있는 효과, 기본소득과 다른 복지 제도와의 관계 등에서 잠정적이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어나고 있었다. 우선 기본소득을 공유부 배당으로 봄으로써 정당성과 원천에 대해 좀 더 확고한 이론적 기반을 부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공유부 배당으로 보는 것은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 이외의 실정적, 잠재적 제3의 소유 형태를 제시하고 겨냥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효과와 관련해서 고용 관계를 포함해서 기존의 관계로부터의 탈출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기본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혹은 사실상 강제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 좀 더 자율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에 대한 강조는 국제적으로 ‘해방적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 속에 놓이게 된다. 끝으로 모든 복지제도를 시장화하려는 우파 기본소득론 그리고 공적 사회서비스의 확장론(혹은 이를 넘어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과 달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후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라는 표어가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

### 기본소득의 현실화 혹은 굴절과 왜곡

이 시기는 기본소득 운동에서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는 때이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나마 기본소득 정책을 (다른 진보적인 정책과 함께) 구현해 보려는 정치인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세 번째 흐름, 즉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접점을 이루면서 나타났다. 이런 만남은 이후 성남 청년배당(2016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2019년), 재난 기본소득(2020년), 농촌 기본소득 실험(2021년) 등의 정책과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라는 기표의 확산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정치 지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기본소득 운동의 선형적 진화 과정으로만 볼 수 없고, 더 큰 정치 과정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굴절과 왜곡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굴절과 왜곡은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주류 정치 내에서의 정치 투쟁을 통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주류 정치와 이른바 진보 정치 사이에서였다. 주류 정치 내에서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사람들도 전통적인 복지국가 관념에 따라 기본소득을 반대했다. 물론 이런 반대가 온전하게 이론적,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기본소득을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불호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 자체도 외면하게 만든 게 현실이었다. 또한 주류 정치 내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기본소득에 대한 물타기를 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나 의미에 대해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라는 핑계로 기본소득 의제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새로운 사상이자 정책인 기본소득이 제대로 된 공적 토론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가로막았다. 다음으로 주류 정치와 진보 정치 사이에서 일어난 굴절과 왜곡은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 정치 내부에서의 굴절과 왜곡이다. 주류 정치 내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치

---

인은 넓은 정치 지형에서 보자면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류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보수적, 자유주의적 진영의 일부로 치부된다. 이런 분할선 속에서 (기존의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발견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분포와 중첩되어) 기본소득은 이른바 진보가 채택할 만한 정책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는 분명 기본소득을 요청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은 도리어 활발해졌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 (혹은 농민수당)이 대표적인 예이며, 정선군은 일찍부터 ‘군민 기본소득’을 실시하고자 했고 (하지만 사회보장 협의에 계속 계류 중이다) 전남에서는 신안군에서 에너지 배당이 실시되고 있으며, 도 전체 차원의 ‘남도 활력 소득’과 전남 교육청의 학생 기본소득(학생 수당)이 추진 중이다.

이런 변화는 2022년 대선 결과로 전체적으로 보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이후에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어찌되었건 굴절과 왜곡 속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되면서 급진적 성격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이 지점에 기본소득을 제대로 실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곤혹스러운 위치가 있다.

## 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2023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주제가 ‘현실 속의 기본소득’으로 정해진 것은 앞서 말한 변화 그리고 우리의 곤혹스러운 위치를 반영하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과 실험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기본소득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모색하기 위한 우리의 방향을 담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2023년 4월 초)에 대회의 프로그램, 자원, 구체적인 준비 등에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 많다. 그래도 준비되고 있는 것을 간추리면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 유사 정책에 대한 공유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각종 기본소득 실험이 향후 기본소득 실시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도출하는 자리 등이 준비 중이다.

다음으로 민주당 내에서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소득사회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체제가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한 의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당연히 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내세울 것이다. (다만 문제는 기본소득 의제를 어떤 시대적 과제와 결합하여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전망과 관련해서 각 정치 세력의 입장과 계획을 듣는 것은 주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 미국의 ‘보장소득 시장 모임’이 참여할 수 있다면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 프로그램 가운데 기본소득 운동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본소득의 정의에 관한 세션이 열린다는 점이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현실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본소득을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생겼고, 이를 위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내에 워킹그룹이 만들어져 활동해 왔다. 이 세션은 그간의 토론 성과를 정리하고 BIEN 차원에서 합의된 기본소득의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이번 대회에 특유한 것은 아니지만 BIEN 창립 회원이자 여전히 기본소득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애니 밀러, 가이 스탠딩,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참여할 예정이다. BIEN의 창립과 함께 현대의 기본소득 운동이 시작된 지 40년 가까이 되고,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도 이미 10년을 넘은지 오래인 지금 기본소득 운동의 베테랑이 함께 하는 것은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나오는 경구를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카르페 디엠.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레오폴트 폰 랑케는 “모든 세대는 신과 등거리에 있다”고 말했다. 2년마다 혹은 1년마다 세계 각지를 돌면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든 대회는 기본소득 운동의 진화를 반영하고 또 추동했지만, 각각의 대회는 다른 대회와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과 힘이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도 진화의 흔적만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한국의 현실, 즉 정치 지형, 기본소득 운동의 확대와 분화 등등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기본소득을 온전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우리 몫일 수밖에 없다.